

평화누리
통일누리

2020년 1-2월 통권 191호

평화누리 통일누리

미대사관 앞 월례평화행동에서
방위비분담금 반대!
금강산 개성 재개 췌방놓는
미국 반대
사진 : 박하영



1 [특집] 새해에 바란다



10 [기고]

한국 원폭피해자의 아픔을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 + 강우일

12 [현안]

한국의 '중항공모함' 도입, 과연 타당할까? + 이기훈



17 [논평]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관련 평통사 논평



21 [회원] 합천 원폭피해구술채록캠프 참가기 + 이애지

22 [소식] 광주/군산/나주/대구/목포/무안/서울/성남용인/익산/해남/대전충청/보령/순천/부산/인천



32 [자료] 핵무기금지조약(TPNW) 전문

38 [회비와 후원금] 감사합니다.

2020 새해에 바란다.

설 명절,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할머니집에 온 아이가
할머니를 따라 과수원을 지나 기지 정문 앞에 섰다.

“기지 공사 중단하고 사드 빼!”





2020년에도 평화를 함께 지켜냅시다.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

안녕하세요. 평통사 동지 여러분, 저는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입니다.

평화롭던 소성리에 사드라는 괴물이 또아리를 틀면서 주민들은 참 많이 힘들고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조용히 찾아와 주민들 손을 잡아준 평통사 동지 여러분들 덕분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성리는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3,4월 중에 공사를 강행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흔들리지 않고 죽을 각오로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통사 여러분들이 소성리 주민들과 가장 많이 함께 하셨지만 2020년 새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반드시 지켜냅시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탑을 쌓으며 사드 철회와 분단 극복을 바란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구자숙

대책위에서 수덕사를 찾았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면서 보니 군데군데 돌탑이 쌓여져 있길래 주위를 둘러보고 돌멩이를 몇 개 주워 엮었다. 식구들의 건강과 연로하신 두 어머니의 건강을 빌고 마지막 큰 돌 하나는 사드 빠지라는 소원을 빌었다.

생각해보니 김천에서 참 평온(?)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를 강타한 김천 인근 사드 배치는 큰 충격이었다. 뛰쳐나온 수많은 시민들... 물론 농소와 울곡동 사람들이 많기는 했으나 시내 사람들도 함께 한 것은 우리 안전이 위험해 진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그 세월이 벌써 5년이 되어간다.

그러니 2020년 가장 큰 소원을 말하라면 사드 철회일 것이지만, 그게 끝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긴장 관계를 조성한 미국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깨달아 미군도 물러가길 요구해야




하겠다. 분단을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올해에는 남과 북이 서로 다가가는 노력을 해도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사드반대 현장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달려와 연대해 주고 있다. 물론 사드와 통일, 노동자의 삶과 관계에 무관심한 조합원들도 많지만, 반면 노동 운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분단 현실임을 많은 조합원들은 이해하고 함께 해주

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조 활동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제값 받는 세상,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일하는 세상, 일터에서 죽어도 되지 않을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기에 결코 사드 반대 운동과 그 목표점이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이 연대자들에게 우리도 연대의 손을 내미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다.

2020년 내가 바라는 그 세상을 이루리라 꿈꾸며 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김천역 평화광장에 오늘도 나간다. 



결국 희망은 우리 손에

성주 소성리 진밭교에서, 김선명 교무

2020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관계에 기대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신년사에서의 다짐을 4번이나 반복하며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이렇게 굳건한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첫 번째 남북미 외교행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의 생일축하메시지 전달자였습니다. 북한은 '이미 LA 핫라인을 통해 받았으니 설레발 치지 말라며' 원색적인 비난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외교행보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입니다.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식의 파병은 '군대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을 위배됩니다. 또한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로 시작된 이란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우호적인 국가 이란을 적국으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북미관계에 기대지 않는 주체적인 길을 걷겠다는 신년사가 무색할 정도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배제한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위주로 한 외교행보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끊임없이 미래에 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의 국익이




라는 희망을 제시하며 현재의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 국익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의 입장을 위해 가져다 바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드 추가 배치'였죠.

그리고 굴욕적인 10차 방위비협상, 지소미아 연장,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일관된 외교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변화를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 정부의 행동이 너무도 일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정부 정책에서 희망을 만들어 온 것은 결국 국민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몰아낸 것도, 문재인 정부 탄생이전 추가 배치를 막아내며 외교적 틈을 만들어 낸 것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것도 결국 국민이었습니다.

2020년 올 한해도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덮으려는 사드를 뽑아내고 그 곳에 희망을 심어 넣시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라는 이름으로 팔아 넘기려는 국민의 평화를, 희망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넣시다. 



아쉬움 없는 경자년 한 해를 위해....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합천지부 심진태 지부장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보자니 아쉬운 소회만 가득합니다. 원폭피해자를 대변하는 일꾼이자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온 힘을 다해 뛰어다녔지만 피해자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라 너무나 아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를 올곧게 정립하기 위해 주야장천 헌신하시는 국내외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다시 기해년을 돌아보자면 아쉬움 외에도 벅찬 감동 또한 밀려오기도 합니다. 지난 73년 동안 원폭영령을 위한 추모제는 철저히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74주기 추모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방문해 추도사를 올리며 영령을 애도하는 등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외되고 잊힌 국민을 보호하고 감싸줄 의무를 뒤늦게나마 자각하고 국가의 책임자가 몸소 나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

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간 국가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우리 원폭피해자의 가슴은 온통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다소나마 덜어 냅니다. 그렇지만 피폭 75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폭자 후세를 포함한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머물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는 심정입니다.



우리 원폭피해자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가가 힘이 없어 자국민이 일본국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철저히 방치했습니다. 지금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에 손을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원폭피해자는 타국에서 노예처럼 노동에 시달리다 해방을 맞았지만 또다시 원자폭탄에 희생당해 지금껏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존을 위해 처절히 싸워야 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후세에게 이어지는 유전성 피해마저 외면하고 대책마련에 손을 놓아 버린 것이 현 정부입니다.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중한 줄을 정말 알고 있는지 정부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녕 알고 있다면 피폭 당시 즉사한 5만 명의 영혼을 위해 추모제 한 번 지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혼들의 애한을 조금이나마 알고 위로하고자 한다면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원폭피해자는 물론 후세를 아우르는 온전한 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부의 늑장 대비책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19일에 반쪽짜리나마 원폭특별법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특별법 규정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위원장이 되고 20명 이내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은 관계부처(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외교부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이고, 그 외는 위촉직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위원회 회의가 고작 2번 열렸을 뿐, 어떠한 성과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피폭자 한 사람이자 지원위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당연직 위원 중 오직 복지부장관만이 회의에 참석했을 따름입니다. 새해에는 당연직 대리가 아닌 위원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석해 문제해결의 실마리 하나라도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폭피해자의 신산한 삶을 다소나마 어루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술증언을 위해 합천원폭지부를 방문한 평통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박4일이란 긴 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해 너무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문규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힘찬 도약을 이뤄가길 미안함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아울러 세계비핵평화공원이 합천에 조성되도록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인류사와 한반도 새판짜기를 그려본다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이사장

나는 인류사회의 절대규범은 평화생명권, 생존권(유엔인권규약 A), 인민의 주체·통제권(참 민주주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탄스럽게도 지난 350여 년의 자본주의·제국주의 지배의 역사는 이들 절대규범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얼룩져 왔다.

물론 마르크스의 뜻을 이어 노동해방과 자아실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제국주의 주도 세계체제의 규정력과 선택력에 의해 좌절되거나 꽃필 수 없었다.

중국은 당 창건 100주년인 내년(2021년)에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맹자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부류인 과부와 고아가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군주의 과업으로 설정한데서 유래)으로 기초 생존권(탈 빈곤선언) 완결을 기하고, 국가창건 100주년인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인류공헌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그렇게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면 난공불락과 같은 제국주의 지배 세계체제가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전쟁이 양산되는 대결체제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인민들의 평화생명권 위협은 현저히 저하되고, 생존권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인민의 주체·통제권이 비약적으로 상승되는 참 민주주의도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분명히 천지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세계 체제 새판짜기이고 인류사회의 진보가 될 것이다. 비록 2018년의 한껏 무르익었던 한반도 평화통일여정이 지금 침전기에 들어가 있지만 새판짜기 세계 체제 속에 함께 또 더 빨리 비상하기를 기대해본다. 



현안 실천에 앞장서려면 부지런히 공부해야

인천평통사 김성태 대표


2018년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2019년엔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한층 더하리라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지난 연말까지 답보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평통사는 지난 한 해 평화정세를 이어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올 2020년 경자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매년 연례행사가 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과 특별

협정 폐기에 국민적 공감을 얻도록 노력해야겠다.

4월 유엔총회를 앞두고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촉구를 위한 비핵·반핵의 당위성을 얻는 서명운동에 열심히 노력해야겠고, 6.13일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이 완공되도록 기금마련콘서트를 잘 치를 것이며, 7.27평화홀씨마당에는 분단 75년을 하루속히 끝내고 평화협정의 길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 불법사드가 또아리틀고 있는 소성리에 사드 철거 평화지킴이 활동에 자주 가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 회원들과 나누고 실천활동도 열심히 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쥐는 부지런한 자질을 가진 동물이라 한다, 특히 흰쥐는 힘도 아주 세고 부지런하단다. 경자년을 한 해 힘을 내어 부지런한 한 해가 되도록 굳게 다짐한다. 




더 많은 청년들과 소통하며 활동의 폭이 넓어지길

광주 청년회원 노승연

2019년에 평통사에 가입해 처음으로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와 남북미 삼각관계, 핵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배웠다. 여러 집회도 참가해 국민의 권리를 주장했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스티커, 웹진 제작, 원폭문제 알리기 활동 등을 하여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올해 20년엔 더 많은 청년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많은 정보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처럼 자주 돌아다니지는 못하겠으나 주변 한 사람에게라도 문제를 알리며 내 몫을 해야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못했지만 먼저 내 환경에 적응하며 학업에 집중 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스토리텔링을 구체화 하여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다가가기 쉽게 웹툰



을 제작하는게 올해 목표이다. 문제가 문제이니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이며 가능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성격이 활발하지 못한지라 교류를 좋아하진 않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 큰 미래를 보며 같은 미래를 꿈꾼다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미미하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2020년 새해다짐 : 부산의 튼튼한 교육역량으로 서는 것

부산평통사 손기중 사무국장


돌아보니 교육위원 모임에 참가한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참가한 교육위원들과 평통사 내용을 공부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어가 익숙해지고, 이해도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졌다. 교육위원 학습은 평통사가 25년 넘게 걸어온 길을 이해할 뿐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인생을 평통사와 함께하리라 다짐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교육위원 학습을 통해 한반도의 아픈 역사, 한미동맹으로 인해 대결과 분단이 고착화되어온 역사를 새롭게 자각했다.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사실도, 심화 학습이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뿌리내려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학습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나아가 평통사가 통일성있는 실천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화, 전문화, 대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내게는 2020년 교육위원 모임 참가 목표가 있다. 이제껏 해왔던 학습을 복습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어 부산의 튼튼한 교육역량으로 서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산평통사의 학습체계를 세워 보고자 한다. 때론 버거울 때도 있지만 부산에서 뿐아니라 평통사에서 믿음직한 간부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원 모임에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활성화되면 좋겠다. 교육위원 모임은 평통사의 현안을 공유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며 실천적 과제를 체득할 뿐 아니라 평통사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이다. 



10년만에 마음 단단히 먹고..

논산모임 변혜숙


평통사 회원이 되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평통사 회원이 되어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하는 다짐이 없었다.

“철조망 홀홀 걷어 서로 오고 가면 그것이 통일이지 통일은 참 쉽지” 그렇게 쉬운 통일을, 평화로 여는 사람들의 행보는 고단하고 고단해 보이기만 했다.

그 고단함의 의미를 애써 외면한 채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10여 년이 지나오는 동안, 평화협정 한마당에서, 평화홀씨 한마당에서, 평통사 중앙 총회에서, 지역총회에서, 달마다 모이는 지역모임에서 골백번도 더 들었을, 그러나 잠시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린.....

여전히 어색하게 발음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의 3차 핵실험, 한미동맹, 비핵화, 등등”이 그렇게 쉬운 통일을 가로막는 악성코드라는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도정님의 애뜻한 발품으로, 유영재님의 애끓는 신념으로 논산계룡의 회원들을 지켜온 10여 년 후에야 시작한 교육위원 활동, 이제야 비로소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스스로 다짐해 본다.

“열심히 공부하자! 평통사의 길. 그리하여, 자주·평화·통일·비핵·군축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으로 힘을 보태며 살아보자”라고 



한국 원폭피해자의 아픔을 언급한 프란치스코 교황

강우일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제주교구장)



프란치스코 교종의 방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한국원폭협회 대표 분들이 내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냐고 하니,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시에 피폭당한 한인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프란치스코 교종께 전달하여 일본에 오셨을 때 한 말씀만이라도 한국인 피폭자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도록 주선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내가 프란치스코 교종께 그런 부탁을 드려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한국인 피폭자들의 사정과 과정을 알리는 편지를 작성하여 주한교황대사를 통하여 교종께 직접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한인들이 왜 거기서 피폭을 당했는지,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쓰고, 히로시마에서 피폭을 당한 많은 한인들 중 대부분이 내 조상의 고향 합천 출신 주민들이었기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일본의 천주교 주교회의의 초대로 11월 25일 동경도쿄돔 구장에서 열리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집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동경에 도착해서 바티칸 홈 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일반 언론에 실리지 않은 11월 24일 저녁 히로시마에서 하신 프란치스코 교종의 메시지 전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그분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메시지 서두에 실린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한국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송년모임에 참여한 강우일 주교의 인사말 전문을 싣는다.

“바로 이곳에서 섬광의 폭발과 화염에 휩싸여 그토록 많은 사람, 그토록 많은 꿈과 희망이 죽음의 그림자와 침묵을 남긴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과 한순간에 모든 것이 파괴와 죽음의 블랙홀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 침묵의 심연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외침을 오늘날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왔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역사에 뿐만 아니라 인류의 면전에 영원한 흔적을 남긴 무시무시한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같은 운명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희생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 첫 순간에 살아남았고, 이후 긴 세월 동안 신체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정신적으로는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죽음의 씨앗을 지녀야 했던 사람들의 강인함과 존엄 앞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나는 평화의 순례자로서 이곳에 와서 고요히 기도를 바치고, 엄청난 폭력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회상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우리 시대의 남녀들, 특히 젊은이들의 기도와 열망을 가슴속에 새겨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한일 양국의 외교관계가 대단히 예민한 상황에 있었기에 한인피폭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아픔과 한을 전해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왔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둘러서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5만여 명이 모인 25일 도쿄돔에서의 대미사 후에 제대 뒤쪽에서 외국에서 온 주교들 3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큰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셔서 허깅을 하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그 전날 히로시마에서 다른 장소에서 와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 피폭자들에 대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히로시마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전쟁 목적을 위해 원자력을 사용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인류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 가정의 미래 삶을 거스르는 범죄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가공할 만한 새로운 전쟁무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우리가 진정으로 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 싶다면 우리 손에서 무기를 떼버려야 합니다. 공격용 무기를 손에 들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중항공모함’ 도입, 과연 타당할까?



이기훈 간사

해군력, 특히 항공모함을 둘러싼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과 경쟁’을 요체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하거나 추가로 배치하는 등 아시아·해군력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속속 항공모함을 도입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해군력 증강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도 그 뒤를 따르며 동북아 해군력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며 동북아 군비경쟁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다. 2020년 국방예산에서 F-35B와 같은 단거리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배수량 4만 톤의 대형수송함-II(LPX-II)을 신규 사업으로 설정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중항공모함’으로 분류되는 규모다. 2020년 관련예산은 애초 보도자료(2019년 8월 29일)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등 271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서는 선행연구 및 분석평가 명목으로 편성된 41.3억 원만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수송함-II는 건조비용만 3조 원 이상이 소요(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9년 10월 10일)되며, 수송함에 탑재될 함재기 도입비용과 운영유지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비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려면 ‘중항공모함’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일까? 이 질문에 한국 국방부는 목에 한껏 힘을 주고 ‘그렇다’고 답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에게 ‘중항공모함’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우선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을 살펴보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보도자료와 국정감사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해군의 상륙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기동부대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요인의 다양화와 범위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의 주장은 구구절절 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명분이란 명분은 다 갖다 붙여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국방부의 주장이 갖는 문제점을 차근차근 파헤쳐보자.

우선 국방부가 말하는 ‘상륙 수송 능력’과 ‘기동부대 작전 수행 능력’은 대형수송함-Ⅱ가 맡게 될 상륙작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륙작전이란 “해군과 상륙군이 해양을 통하여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 작전 군사용어사전>, 2004)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스스로 대형수송함-Ⅱ가 ‘공격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무기체계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방부가 사업목적으로 제시할 때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 다. 그러나 북한의 해군력은 남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함정이나 잠수함 등의 해군전력은 톤(Ton) 수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남한의 해군력은 함정 240척에 총 톤수는 21만7000톤에 달하는 반면, 북한의 해군력은 함정 770척에 총 톤수는 11만1000톤에 불과하다(<2019 일본 방위백서>). 북한이 남한보다 3배나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총톤수에서 남한이 북한의 약 2배에 달하는 압도적 우위에 있다.

게다가 이미 한국군은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독도함과 마라도함과 같은 대형수송함을 운영하고 있거나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점은 이들 대형수송함들이 한국군에게 있어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공세적 작전개념에 따라 전쟁 발발 초기 북한의 지대함 공격 사거리 안에서 수송함을 통해 상륙작전을 수행할 경우 한국 해군과 공군의 엄호사격 등의 지원을 받더라도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번에 해군이 도입하려는 ‘중항공모함’(대형수송함-Ⅱ)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기에 전장을 적지로 확대하고 적 전투력의 중추부를 타격하는 중심작전’(합동 연합 작전 군사용어사전)과 같은 대북 공세작전을 수행하는 데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애초 항공모함은 작전 수행 시 반경과 범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바다 위

에 떠다니는 비행장'이다. 그런데 한반도 작전의 경우 전투기나 헬기 등이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전투서열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항공모함 역시 휴전선 북쪽 동해나 서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북한의 포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전선 남쪽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군사적 효용성은 더욱 떨어진다.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해리티지 재단의 다코다 우리 선임연구원이 “한반도 동·서해의 과밀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대형 상륙함(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VOA, 2019년 10월 3일)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

과연 한국군은 720명의 병력과 20기에 달하는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 ‘중항공모함’을 어떤 작전에 투입하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한 해군이 맡고 있거나 맡게 될 그 어떤 작전에도 항공모함을 투입할 경우는 사실상 없어 보이며, 해군이 ‘중항공모함’ 소요를 제기하는 것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본토에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전투기로 공격하거나 혹은 주변국들의 함정들과 수상전이나 대잠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항공모함을 투입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작전들은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헌장과 침략전쟁을 부정한 우리 헌법에 반하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없는 경우다.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 함정과 교전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사실 ‘주변국 해군력 강화에 대비’ 등의 사업

목적 저변에는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사고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스스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발상이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는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력 공격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육·해·공 전력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승수를 가진 중국도 러시아와 인도 등 16여 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미국의 패권 전략(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고 만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 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을 증강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규정(〈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년 6월 1일)하는 등 대결적 자세와 패권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한국이 중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그에 따라 기동부대를 창설하게 된다면 그 전력들이 주변국과의 대결과 미국의 패권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증강시키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국 7함대 사령부는 강습상륙함 ‘복서함’을 운용하는 복서 상륙준비단(ARG)과 해병 제11원정단(MEU)이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9년 10월 9일).

또한 최근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7함대 작전구역에 전진 배치하고, 최신형 항모급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함’을 주일미군 사세보 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9년 12월 3일).

〈뉴데일리〉의 2019년 9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인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에의)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항공모함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될 수도 있다

중항공모함에 탑재될 수 있는 F-35B와 같은 전투기가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과 유사시가 됐을 때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가능성이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현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KBS, 2019년 10월 30일).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중, 북미 유사시 한국군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공격하거나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과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가져올 전쟁에 끌려들어 가는 것이다.

대형수송함-Ⅱ 관련 예산집행 중단하고 사업 계획도 철회해야

‘중항공모함’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 있는 등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한국에게는 엄청난 국가재정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중항공모함’을 도입해 동북아 군비경쟁에 가세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에 맞춰 해군력을 감축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군축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수송함-Ⅱ 사업 관련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한다면 대형수송함-Ⅱ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모두 집행 정지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업 계획도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관련 평통사 논평〉 미국의 강요에 따른 위험천만하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하라!

1. 미국의 강압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본격 편입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적 퇴치 목적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하는 기만적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동지역 긴장 고조’의 원인은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정치·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온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있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봉쇄하기 위해 국제해양안보구상(MSC·호르무즈호위연합)을 만들고 여기에 한국군 파병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우호적 관계이던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은 방위비분담금과 남북관계 문제까지 동원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다.

미국의 강압에 따른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파병 강행과 미국의 대이란 봉쇄 전선 가담은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동원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정부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는 ‘항행의 자유’를 든 것은 우리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이후에도 미국이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분쟁에 한국군을 동원하고, 여기에 국민 생명과 막대한 자산이 희생물로 바쳐지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과 국익, 평화를 크게 해치는 일이다.

2. 이란을 적대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희생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의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매일경제, 2020. 1. 8)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미국의 모험주의에 동조하는 것은 오랜 양국 관계에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답했다”(연합뉴스, 2020. 1. 21).

이를 우려해서인지 문재인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파병 자체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스스로 “필요한 경우에는 IMSC(국제해양안보구상,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Construct)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데서 보듯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는 청해부대가 이란에 대해 적대적 성격을 띄는 것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대성을 갖는 전력을 파병하는 것은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란에 대한 적대적 성격의, 베트남전 이래 최초의 전투병 파병으로 정부가 내세운 파병 근거인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오히려 위태롭게 되었다. 현재의 긴장된 정세와 협소한 지형을 고려할 때 언제 어떤 불행할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며, 그 위험은 파병부대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등지의 교민에게까지 확대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으로 김선일 씨와 샘물교회 교인들이 끔찍하게 희생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파병 결정은 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회의 파병 동의권을 짓밟는 파병 결정은 위헌 불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파병 동의는 필요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작전지역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 임무가 ‘해적 퇴치’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봉쇄’라는 점에서 다르고, 요구 주체도 ‘유엔안보리’와 ‘미국’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다르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어디에도 호르무즈 해

협 파병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작전 범위의 호르무즈 해협 확장의 근거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는 동의안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설명의 일부일 뿐이다. 실제 그에 따른 아덴만 해역 밖의 작전의 경우 모두 납치 선원이나 재외국민 철수 작전 등 그야말로 긴급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연합뉴스, 2020. 1. 21). 따라서 이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지금의 정부 주장과는 달리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정부의 억지는 자신의 입장마저 스스로 뒤집는 명백한 위헌이다.

한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 결정하기 훨씬 전인 2019년 7월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사전조치로서 청해부대의 주된 기항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무스카트로 이동하고(한국공보뉴스, 2020. 1. 21), 2019년 8월 13일에 출항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에 대잠무기, 센서, 대공능력을 보강했다. 국방부가 한편으로는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파병을 추진하고 있던 것은 국회에 대한 기만이자 국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미국의 강요에 따른 위험천만하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하라.

우리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이 미국의 강요에 따라 세계패권전략에 본격적으로 끌려들어가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짓밟는 위헌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해치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 1. 21.) 





합천 한국원폭피해자 구술채록캠프 참가기

이애지 청년회원


2020년 1월 6일 두번째 합천 구술 채록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구술 채록을 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두번째 방문이라 그런지 어르신들께서 더욱 환하게, 따뜻하게 반겨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술 채록을 한 어르신들은 입원을 하셨거나 치매 등으로 기억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들께서 많이 어리시기도 했기 때문에 구술 채록을 하는 동안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의 이야기속에서 미국의 원폭투하로 인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술 채록을 마칠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박석분 팀장님께서 '청년들이 구술채록활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 라는 주제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의 구술채록활동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일은 혁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을 듣고 난 후 구술채록활동을 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구술 채록 활동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술채록 캠프 이모저모 (2020. 1.6~1.9, 합천)

구술 채록 활동을 하는 동안 청년들이 함께 밥을 지어먹고 이야기 꽃도 피우고 도란도란 모여 자면서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청년들과 지내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뒷풀이 때는 맛있는 고기도 먹으면서 청년들의 애뜻한 사연들,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어 뜻 깊은 4일을 보냈습니다.

3박 4일의 합천 구술 채록 캠프를 하면서 구술 채록 활동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에게도 핵이 있는 한 원폭 피해가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해 알리고 더 많은 구술채록원들을 조직하는 일에 힘 써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핵을 사용한 나라가 피해자들의 참혹한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구술 채록 사업으로 꼭 원폭 피해자분들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비핵에 참여하여 더 이상은 누구도 핵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했기에 2020 겨울 합천 구술 채록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은 핵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실천인 한국 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 광주평통사

2020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다



2020년 첫 달을 맞이하여 총회준비 등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 갔습니다. 1월 7일(화) 11기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10기 10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통사 중앙운영위원 총회위원 추천과 2020년 광주평통사 총회 준비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평통사 중앙운영위원 총회 위원은 정규영, 홍기원 당연직 운영위원을 비롯해 30명의 선출직 운영위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광주평통사 총회는 3월 29일(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1층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총회에는 80여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준비에 정성을 쏟기로 했습니다.



2020년 첫 사업으로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방위비분담금 1인 시위를 2020년부터 월 2회 피켓팅,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운동과 결합해서 월 2회 집중해서 진행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첫 피켓팅을 1월 18일(토) 금남로 알라딘 서점 앞에서 7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했습니다.

| 정동석 |

♥ 군산평통사

새해맞이 회원의 날



새해 들어 첫 행사로 '회원의 날' 행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 자문위원들, 신입회원들, 기존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덕담도 듣고 돌아가며 자기 소개와 올 한해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 또 자신의 삶을 보람차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내 생화학 물질 반입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의견도 모으고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투쟁에 대한 격려도 있었습니다. 농민회에서는 북한동포를 위한 트랙터와 쌀 보내기 운동을 꼭 관철하기위해 노력하시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서로서로 반가운 얼굴 마주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이 있어 못 온 회원들도 소식 전해 듣고 참여 했습니다. 새해벽두의 새로운 기운을 쭉~ 몰아서 7.27 홀씨마당까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 최소영 |

♥ 나주평통사

1월 공부모임

1월 17일(금) '핵무기금지조약과 우리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이레교회에서 1월 공부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원폭 피해자 현황, 핵 확산 금지 조약(NPT),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운동의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정동석 |

♥ 대구평통사

우리는 지지 않는다



2020년 새해 해맞이에 동행해 사드철거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달마산, 백마산에 올라 짧지 않은 투쟁의 시간을 한결같이 버텨준 서로에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더 단단해진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1월 10일, 미국의 전쟁 행위를 규탄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반대하며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민사회 기자회견이 민주당대구시당 앞에서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주한미국대사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을 노골적으로 요청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에 이르기를 촉구합니다.

| 이기자 |

♥ 목포평통사

평화사랑방



1월 10일(목) 신년자리를 통해 2020년 첫 회원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새해를 맞아 서로의 다짐과 평통사의 발전, 평화통일의 염원 등의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김종수 상임대표는 “2020년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 국민들이 북한에 원활히 관광이라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새해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 브리핑과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운동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동석 |

♥ 무안 모임

1월 공부모임



1월 14일(화) ‘핵무기금지조약과 우리의 과제’라는 내용의 공부를 진행하고 주변과 지인, 교회 등을 대상으로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운동 조직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 정동석 |

♥ 보령평통사

1월 정례모임



10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영재 지도위원의 강의로 한국원폭피해자문제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통사의 사업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사업은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옳은 길이라면 발 벗고 찾아나서서 연구하고 행동하는 평통사는 광야에서 외로이 진리를 외치는 요한의 목소리 같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들을 위한 길고 어려운 싸움의 길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평통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 권진복 |

♥ 순천평통사

평화촛불

추운 날씨에도 해를 넘겨가며 매주 목요일 평화촛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마음으로 응원 해주시는 순천평통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자주적인 한미관계, 획기적인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2020년에도 평화촛불은 계속됩니다.

송년회



2019년 12월 17일 회원 및 순천615통일합창단 단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을 되돌아 보고, 2020년 자주평화통일의 새로운 발걸음 내딛기 위해 힘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년산행



새해 첫날 해맞이 번개와 1월 4일(토) 신년산행을 가졌습니다. 새해 첫날은 정유재란의 아픔을 간직한 순천 왜성에서 새해 해돋이와 함께 맛난 떡국을 나누며 새해 소망과 함께 통일의 기운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 한국전쟁시기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전북 회문산에서 평화와 통일을 기리는 신년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용재 |

♥ 부산평통사

천주교계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촉구 서명운동 시작



1월 6일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운동 천주교계 1차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승자 감사, 전나미 회원, 김혜경 회원을 중심으로 천주교계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을 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천주교 부산교구 가톨릭센터, 아세미(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100여 명의 교인들이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부산평통사 12차 정기총회 준비

매주 수요일마다 12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 강문수 대표, 손기종 사무국장과 운영위원들이 총회 준비를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부산평통사 12차 정기총회는 2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감리교회관 8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합창홀씨 신년회

호순미선 콘서트를 성사시킨 합창홀씨와 회원들이 화식 및 신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은 각자 콘서트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난 이후 소감을 공유하였습니다. 콘서트를 관련한 합창단원의 지인은 호순미선 사건을 처음 알았다고 응원하고 회원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연을 관람한 회원 가족 모녀가 합창단원으로 앞으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합창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도 회지모임 출발



영도구에서 네번째 회지읽기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명옥, 차성호 운영위원과 오영환 회원이 모여 12월 회지를 다같이 읽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매달 첫 번째 월요일마다 모임을 진행합니다. 영도 뿐만 아니라 1월 10일-양산 회지읽기모임, 1월 13일-통일누리, 1월 22일-마창진 회지읽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 평화발자국 준비모임

새해부터 사무실에는 2월 고베 평화발자국 준비를 위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부산평통사는 부산을 비핵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핵평화 부산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발자국은 1975년부터 핵무기 적재 함정을 거부하고 있는 고베시의 경험을 배우고자 나섭니다.



| 유수진 |

♥ 서울평통사

용산기지 둘러보기



12월 7일(토), 용산기지와 남영동 대공분실 둘러보기를 진행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내의 시설들은 대체로 평택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와 잔류부지 문제 등 반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둘러보러 온 시민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3.1운동 100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전시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가끔 진눈깨비도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날씨였지만 함께한 분들은 모두 의미있었다고 합니다. 반환 과정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점심식사



12월 21일(금), 연배는 높지만 평화통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청년들 못지 않는 회원들과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전히 평통사 실천에 나오는 회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거동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남북, 북미 관계가 잘 풀려서 하루 빨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되어야겠다고 생각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평통사 정혜열 고문이 아버님 정상윤 선생께서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셔서 평통사로 기금을 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평통사 회원들께 손편지 쓰기



서울 평통사 운영위원회에서 연말을 맞아 회원들께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연말 인사와 함께 회원확대를 위해 주변에 평통사 회원가입 권유를 요청드리고, 연말 회비 한 번 더 내기도 말씀드렸습니다. 20여 분 회원이 연말 회비 한 번 더 내기에 참여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서울평통사 18차 정기총회

- ▶ 일시 : 2020년 3월 27일(금), 오후 7시
-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가안)

| 황윤미 |

♥성남용인평통사(준)

회원모임 겸 송년회



12월 20일 회원모임 겸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황윤미 서울대표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를 듣고 회원들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내용은 평화통일 연구소가 프란치스코회관 토론회에서 발제한 것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월례모임에 못 나오던 회원도 나와 동지팔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화가에애한 2019년 마지막 회원모임이었습니다.

| 서덕석 |

♥ 익산평통사

핵무기금지조약(TPNW) 강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하여 박석분 팀장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군산 평통사 대표와 사무국장도 참석했습니다. 핵의 위험성, 원폭 피해

의 유전성 등을 알 수 있었으며,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로, 한국인 피폭자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0만 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17년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채택되었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에 동참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 조원일 |

♥ 해남평통사

공부모임



1월 20일(월) 해남 YMCA에서 ‘방위비분담금 관련 브리핑’과 ‘핵무기금지조약과 우리의 과제’라는 내용으로 해남평통사 1월 공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기 한 차례 공부한 내용이라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핵무기금지조약(TPNW)가입 촉구 국제 서명운동 용지를 배포하고 서명운동 조직을 결의하였습니다.

| 정동석 |

♥대전충청모임

핵무기금지조약(TPNW) 강의



12월 30일, 천안아산모임이 아산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두 분이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천안아산 평통사 준비모임을 꾸리고, 천안 대표를 심우근님, 아산 대표를 황의대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이 모여 힘을 받아 준두모임까지 꾸리게 되어 기쁘고 고맙습니다.

2020 겨울 대전 시민 평화아카데미



1월 10일, ‘2020 겨울 대전 시민 평화아카데미’ 1강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원폭피해자 문제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하여 한정순 한국 원폭피해 2세 환우회 명예회장의 인터뷰,

영상, 피피티를 통해 알아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생소한 얘기였다는 반응이었고, 이제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지를 가지고 가서 주위에서 서명을 받아오기로 결의했습니다. 2강은 1월 16일(목),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조원 요구, 한국은 봉인가?”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피피티와 영상을 통해 미국 요구의 불법부당성에 대한 생생한 강의를 들으면서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질의응답과 뒤풀이 과정에서 미국의 횡포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성토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었습니다. 두 분의 참가자가 1강 때 나누었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서명지에 3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 유영재 |

♥ 인천평통사

2020년 새해 첫 평화사랑방



‘핵무기금지조약과 한반도비핵화 그리고 평화협정’이라는 주제로 평통사 김강연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강연 사무처장은 ‘핵무기는 필요악이 아니라 절대악’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핵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위험·사용 포함 핵무기의 전면 금지(핵무기 개발, 실험, 생산, 제조, 획득, 보유, 비축 금지, 이전과 수령금지,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 금지, 조약에서 금지한 활동에 대해 참여 지원 등 금지, 자국 영토 관할권 하의 어느 장소에도 핵무기 주둔, 설치, 배치 허용 금지)를 담고 있기에 핵무기의 완전 철폐를 향한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국제법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회원들도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운동을 힘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 인천평통사 총회

인천평통사 18차 정기총회를 3/13(금) 저녁 7시, 주안1동성당(예정)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처음으로 평일인 금요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대표 및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로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총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운영위원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회원여러분~

올해 인천평통사 총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협정폐기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지속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협정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추운날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서은철 김태정 김성만 김 숙 안태건 이승희 주민식 이수진 송석우 한재수

12월 송년회 후원 감사합니다.

강한일 고보선 고영남 고춘화 김미경 김민서 김보희 김성태 김애안 김우경 김은옥 김현주 김형진 류미애 문한나 박순길 박영민 박옥희 박종익 서덕용 송정로 송한석 신나영 신동환 심형진 안용국 원 웅 유한경 유현섭 윤영섭 이덕례 이성은 이옥재 이은순 이정옥 이정옥 이종민 이종옥 이춘식 임병구 정송호 조강희 조성혜 조인휘 최정욱 홍학기 황병태 황현숙 김명수 박병률(요셉) 양신자(마리아) 조규천(요셉) 장상숙 김은화 한창석 이유정(미카엘) 김주옥(미카엘라) 김영이 김보성 도화동성당 인천교구CWM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주노동당 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인천여성민우회 청솔의집 신일컴스 구월1동성당

* 이 외에 물품과 자원봉사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 강동주 서경혜 원 웅 심신아 김은옥

2017년 7월 7일 80개국이 서명하여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의 비준국이 35개국이 되었다. (2019년 10월 현재) 비준한 나라가 50개국이 넘으면 조약은 발효되고 핵무기는 국제법적으로 불법화된다. 이에 통권 188호에 실렸던 것을 몇가지 오차를 수정하여 다시 싣는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이 하였다. - 편집자 주

핵무기 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조약 당사국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기로 결정하며,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초래될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핵무기 완전 폐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오판 혹은 의도에 의한 핵무기 폭발을 포함하여 핵무기가 계속 존재함으로써 초래되는 위험을 유념하고, 이러한 위험이 인류의 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국가는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을 막는데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기의 재앙적인 결과는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으며, 국경을 초월하며 인류의 생존, 환경, 사회경제적 발전, 세계 경제, 식량안보 그리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전리 방사선의 결과를 포함해 여성과 소녀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핵군축의 윤리적 필요성 및 국가와 집단 안보에 이익이 되는 최고의 세계적 공익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일의 긴급성을 인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피해자들(hibakusha) 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의 피해자들이 겪은 용납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유념하며,

핵무기 활동이 선주민에 끼치는 불균형한 영향을 인식하며,

모든 국가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하여 해당 국제법을 항상 준수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무력 분쟁에서 전쟁수단과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권리 제한의 원칙, 구별의 원칙, 무차별 공격 금지, 공격 시 비례성과 예방조치에 대한 원칙, 불필요한 손해와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등 국제인도주의법의 원칙과 규칙에 기반을 두고,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무력 분쟁 시 해당 국제법의 규칙,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공공의 양심에 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기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무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세계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군비로 전용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의 수립과 유지가 촉진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핵무기 폐기 촉구에 관한 1946년 1월 24일 유엔 총회 결의안 1호 및 후속 결의안을 상기하며,

핵군축의 더딘 진행과 군사 및 안보 개념·교리·정책에서의 핵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및 핵무기 생산·유지·현대화 프로그램에 경제적·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일을 우려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 금지는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하고 투명하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길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며 그 목적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의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서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향하여 실효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결정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 전 방위적인 핵군축 협상들을 성실하게 추구하며 결론으로 이끌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핵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한 재확인하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및 그 검증 체제가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고,

관련 지역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도출한 협정 위에 설립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핵지대의 수립이 국제 및 지역적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고,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고 핵군축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본 조약의 어떠한 내용도 차별 없는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의 연구·생산·사용에 관한 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하고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증진과 달성에 필수적 요

소를 인식하며, 핵 군축에서 여성의 효과적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일에 기여하며,

모든 측면에서 평화와 군축 교육의 중요성과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핵무기의 위험과 결과에 대한 인식 고취의 중요성을 또한 인식하며, 본 조약의 원칙과 규범의 보급하는 일에 헌신을 다짐하며,

핵무기 전면 폐기 촉구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인도의 제 원칙을 발전시키는 공공양심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엔, 국제 적십자, 적신월사 운동, 기타 국제·지역 기구, 비정부기구, 종교 지도자, 국회의원, 학계, 피폭자들이 동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금지 (Prohibitions)

1.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다음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

(a)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개발, 실험, 생산, 제조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획득, 보유 또는 비축;

(b)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이전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

(c)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 받거나 이에 대한 관리를 인수함;

(d)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

(e) 본 조약에 따라 당사국에 금지된 활동에 대해 참여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장려, 지원 또는 유도;

(f) 본 조약에 따라 당사국에 금지된 활동 참여하고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g)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또는 통제 하의 어느 장소에서든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주둔, 설치 또는 배치를 허용;

제2조 신고 (Declarations)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이 각 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에 대해 신고한다.:

(a) 당사국이 본 조약을 발효하기 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했었는지 여부와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했었는지에 대해 신고;

(b) 제1조 (a)항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신고;

(c) 제1조 (g)항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장소, 또는 타 국가에 의해 소유, 보유 또는 통제되는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가 있는지 신고;

2. 유엔 사무총장은 접수 받은 모든 신고서를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제3조 안전조치 (Safeguards)

1.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추가적 관련 문서의 채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약 발효 시점에서 수행하기로 한 최소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유지한다.

2.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당사국 중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하고 전면 안전조치협정(INF-CIRC/153 개정본)을 발효해야 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개시한다. 당사국이 본 조약이 발효한 후 18개월 이내에 동 협정을 발효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추가적 관련 문서의 채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의무를 그 후에도 유지한다.

제4조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향하여 : 핵무기 전면 폐기 조치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1. 2017년 7월 7일 이후,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통제했으며,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이 당사국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제거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 국제기관과 협력한다.

관할 국제기관은 당사국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당사국은 평화적인 핵 활동에서 나온 신고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으며 당사국 내에서 미신고된 핵물질 또는 핵활동 없었음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개시한다.

당사국이 본 조약을 발효한 후 18개월 이내에 동 협정을 발효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향후 채택될 수 있는 추가적 관련 문서의 채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의무를 그 후에도 유지한다.

2. 제1조 (a)항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이것들을 작전 상태에서 즉시 해제하고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한 계획에 따라 가능한 빨리 그러나 제1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시한을 넘기지 않는 시일 내에 해체한다.

동 당사국은 자국에서 본 조약을 발효한 후 60일 이내에, 본 조약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지정한 관할 국제기구에 이러한 계획을 제출한다.

동 계획은 관할 국제기구와 함께 협의되며, 절차 규칙에 따른 승인을 위해 당사국 회의 또는 조약 평가회의 중 먼저 개최되는 후속 회의에 제출된다.

3. 제2항에 해당되는 당사국은 평화적 핵 활동에서 나온 신고 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으며 당사국 내에서 미신고 된 핵물질 또는 핵 활동이 없었음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장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국제원자력 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제2항에 언급한 계획 이행일, 완료일 이내에 개시한다.

당사국은 최초 협상일 후, 18개월 이내에 동 협정을 발효한다.

각 당사국은 향후 추가적 관련 문서의 채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의무를 그 후에도 유지한다.

본 조약에서 언급된 협정이 발효된 후,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조항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음에 대한 최종 신고서를 제출한다.

4. 제1조 (b) 및 (g)항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또는 통제의 어느 장소에 또는 타 국가에 의해 소유, 보유 또는 통제되었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가 있는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제1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시한을 넘기지 않는 시일 내에 이러한 무기의 신속한 제거를 보장한다.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거한 후,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

5. 본 조항에 해당되는 각 당사국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 때까지 이에 따른 이행 관련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 당사국 회의 및 매 조약 평가회의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제거에 관해 협상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

한 관할 국제기구 또는 권위자를 지정한다.

본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적용되는 당사국이 본 조약을 발효하기 전에 이러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엔 사무총장은 요구될 수 있는 여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임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 국가이행

(National implementation)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따라, 금지되는 여하한 활동이 자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개인에 의해 또는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양형규정 부과 등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

(Victim assistance and environmental remediation)

1. 각 당사국 들은 핵무기 사용 또는 실험의 영향을 받은 자국 관할권 내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지원을 차별 없이 적절하게 제공한다.

2. 각 당사국들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실험 또는 사용과 관련된 활동의 결과로 오염된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오염된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따른 의무는 국제법이나 양자협정에 따른 기타 국가들의 임무와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국제협력과 지원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1.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 본 조약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협력한다.
2. 본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타 당사국으로부터 지원을 구하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사국은 본 조약의 이행을 심화시키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 또는 시험의 영향을 받은 당사국에게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사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사용이나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5. 본 조항에 따른 지원은 그 중에서도 유엔 체제, 국제 또는 지역, 국가 기구나 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기관, 국제 적십자위원회, 적십자와 적신월사 국제 연맹, 국가 차원의 적십자와 적신월사 혹은 양자 기반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
6. 국제법에 따른 기타 국가들의 의무 또는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사용하거나 실험한 당사국은 이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게 피해자 지원이나 환경복원을 위해 적절히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8조 당사국 회의

(Meeting of States Parties)

1. 당사국은 본 조약의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된 사항 및 다음과 같은 핵 군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유관 절차에 따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이행과 현황

- (b) 본 조약에 대한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검증된, 시한이 있으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조치

(c) 본 조약의 제 규정에 따르고 부합하는 기타 사항

2. 제1차 당사국 회의는 본 조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추가적인 당사국 회의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엔 사무총장이 격년마다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는 제1세션에서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채택 대기 중에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의 발판이 되는 핵무기 금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한 유엔 협상의 절차규칙을 적용한다.

3. 임시 당사국 회의는 당사국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동 요청에 대해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며,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4. 본 조약이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유엔 사무총장은 본 조약의 운용과 목적 달성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목적의 추가적 평가회의를 6년 간격으로 소집한다.

5. 유엔체제의 유관단체, 기타 유관 국제기구 또는 기관, 지역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 적십자 및 적신월사 국제연맹과 유관 비정부기구뿐만 아니라 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당사국 회의 및 평가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제9조 비용

(Costs)

1. 당사국 회의, 검토회의와 임시 당사국 회의비용은 본 조약의 당사국 또는 옵저버로 참여하는 비당

사국이 국제연합분담금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부담한다.

2. 본 조약의 2조에 따른 신고의 회람, 4조에 따른 보고와 제10조에 따른 개정 제안 등에 있어 유엔 사무총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당사국이 유엔분담금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부담한다.

3.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전환을 포함하여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해체와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와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제4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증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0조 개정 (Amendments)

1. 본 조약의 발효 후 언제든지 모든 당사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문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며,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하고, 동 제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다.

만약 당사국 과반수가 회람 후 90일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 제안에 대한 추가적 고려를 지지한다고 통보한 경우, 동 제안은 차기 당사국 회의 또는 검토 회의 중 먼저 개최되는 회의에서 고려된다.

2. 당사국 회의 또는 검토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다. 수탁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3. 이 개정안은 채택 당시 당사국의 과반 이상이 개정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후 90일이 지나면, 이러한 개정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각 당사국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각 당사국들이 개정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지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11조 분쟁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1.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국은 유엔 헌장 제 33조에 따라 협상으로 또는 당사국들의 선택에 따른 다른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합의한다.

2. 당사국 회의는 중재하고 분쟁 당사국에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또한 합의된 절차에 대한 시한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본 조약의 관련 규정 및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편성 (Universality)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게 모든 당사국에 부여된 보편적 목적을 장려한다.

제13조 서명 (Signature)

본 조약은 2017년 9월 20일에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제14조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해 비준, 수락, 승인되어야 한다. 본 조약은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5조 발효

(Entry into force)

1. 본 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2.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90일 후에 본 조약이 발효된다.

제16조 유보

(Reservations)

본 조약의 조항은 유보되지 않는다.

제17조 유효기간 및 탈퇴

(Duration and withdrawal)

1.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2. 각 당사국들은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조약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탈퇴를 기탁국에 통보해야 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12개월의 기간이 만기되더라도, 탈퇴 국가가 무력 분쟁국일 경우, 해당 당사국은 무력 분쟁국에서 벗어날 때까지 본 조약과 여하한 추가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계속해서 구속된다.

제18조 기타 협정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other agreements)

본 조약의 이행은 기존 국제 협정에 가입한 당사국이 수행하는 본 조약과 부합되는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9조 수탁자

(Depositary)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조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제20조 정본

(Authentic texts)

본 조약의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불어본, 러시아본 및 서반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2017년 7월 7일 뉴욕에서 작성하였다.

회비와 후원금

(2019.12/2020.0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12월 회비]

강만길 강경주 고영대 권영선 권정호 김광진 김광진 김귀옥 김동원 김명래
김상열 김성한 김용순 김정수 김태인 김형배 김홍수 문규현 문홍주 배종열
배현철 유영섭 이규영 이성호 이영민 이옥수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장경옥
전시우 정경훈 조상수 최해성 홍영진 황호명

[정기후원금]

권승훈 김광열 김일회 김정옥 KIMUNGH 들꽃향린교회 문홍주 박석중 양동일
이현숙 전주남문교회 정규영 정해열 조문자 조민희 황병태 하늘평화공동체
채 향린교회

[1월 회비]

강만길 강경주 고영대 권영선 권정호 김광진 김귀옥 김동원 김명래 김상열
김광열 김용순 김정수 김태인 김형배 김홍수 문규현 문홍주 배종열 배현철
안진걸 유영섭 이규영 이상진 이성호 이영민 이옥수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장경옥 전성식 전시우 정경훈 조상수 조은숙 최해성 홍영진 황호명

[정기후원금]

김광열 김경옥 노해정 들꽃향린교회 림구호 문홍주 박석중 박석중 송광성
양동일 이현숙 전주남문교회 조문자 조민희 최만정 하늘평화공동체 향린교회
회 향린장년반신도회 황병태

광양평통사

[12월 회비]

강상연 김금례(김복) 김부필 김용선 김용주 박수완 박영실 배민후 배영일
신덕희 신유순 신장환 안성은 안정주 오종호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상수
이정재 이종재 이현아(서영만) 이희정 전진희(천우주) 정인재 정일태 주경
진 진덕미 최 열 황미경

[1월 회비]

강상연 김금례(김복) 김부필 김용선 김용주 박수완 박영실 배민후 배영일
신덕희 신유순 신장환 안성은 안정주 오종호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상수
이정재 이종재 이현아(서영만) 이희정 전진희(천우주) 정인재 정일태 주경
진 진덕미 최 열 황미경

광주평통사

[12월 회비]

강경식 강세홍 강숙향 강은미 강정원 강지연 강춘원 고영인 고익종 고재환
구기연 권경희 기원주 김가영 김경민 김광관 김광중 김기남 김기만 김기현
김달아 김덕용 김덕우 김동열 김동우 김동호 김문석 김미숙 김미영 김미진
김민정 김민선 김민정 김민호 김보환 김병문 김상철 김선미 김선호
김성룡 김수영 김수하 김순홍 김승식 김승원 김아영 김형배 김영석 김영식
김예지 김옥희 김용근 김홍근 김홍복 김홍우 김유민 김은규 김은정 김은지
김재중 김재홍 김 정 김정선 김정은 김종대 김종석 김종필 김지호 김진수
김진환 김태완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현태 김혜련 김혜선 김홍길 김화광
김화순 김효경 김희중 김희정 나윤상 노일정 노진영 노혜민 류민숙 류승환
명정관 명경희 박광희 박기영 박경민 박광관 박기남 박기만 박기현 박석우
박선규 박선이 박성수 박수희 박영민 박오원 박유수 박일남 박재영 박정화
박종원 박종주 박종열 박희영 박대순 박형아 박효선 박효환 배아연 배진하
백금열 백지은 백희정 변하연 서경순 서광진 서기용 서부원 서일권 서준환
서진영 서현미 성창우 손민선 손수영 송규완 송기철 송미숙 송순교 송진경
신경구 신경희 신영호 안 민 안영진 안효철 양 동 양민철 양성수 양승호
양영우 양혜은 연지연 오공희 오봉록 오승경 오정아 오창규 우승관 위유민
위환복 위시훈 유영열 유종천 유도영 윤봉린 윤상호 윤유식 윤종범 윤지숙
윤정자 윤태원 윤현식 윤형현 이건규 이경진 이광철 이교창 이귀연 이금호
이기문 이기현 이기호 이다혜 이매실 이미옥 이민형 이병석 이병일 이석주
이성계 이수경 이숙희 이영선 이영형 이영민 이영주 이영희 이우원 이윤정
이은수 이정옥 이종록 이지하 이진덕 이철우 이태록 이한수 이현기 이현수
이훈규 임가람 임광식 임대현 임미이 임성수 임세미 임종모 장관철 장덕자
장동식 장성룡 장애란 장유리 전경일 전 정 전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식 정록호 정보형 정성규 정성호 정세원 정수진 정순임 정시영 정영모
정우식 정종득 정현선 정현우 정호수 정경미 진중화 최영도 최은호 최진희
최정환 최기호 최홍수 최동훈 최호수 최성민 최성태 최성태 최성태 최성태
최치현 탁우순 표경식 표영민 홍광표 홍기원 홍상대 홍영애 홍요한 홍인희
황관택 황정진 한마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12월 회비]

고동식 권태균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남기 김봉옥 김상덕 김성영 김성곤
김상수 김성훈 김수진 김오수 김정호 김진 김진환 김태철 김형균 나기학
나선환 남대진 남대진 노승민 문성국 문지영 문지영 박금자 박옥현
박옥현 박현철 배현철 서대석 서동원 선진숙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기만 양은희 오금수 오선환 오주병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이계택 이명로 이봉호 이선희 이옥선 이재호 이종인 이지윤 이진우 이천오
이현주 이현철 이희정 임은혜 임은혜 임정원 임준희 임홍연 정미애 정재순

전희남 정 민 정성빈 정옥진 정지숙 조경수 조규춘 조성진 조수현 조영환
조용주 조인호 조판철 주호균(문규영) 진인하 채영호 최강민 최성영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정숙 현기식 황 진

[1월 회비]

강임숙 고동식 권태균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남기 김봉옥 김상덕 김성곤
김성수 김성훈 김수진 김오수 김정호 김진 김진환 김태철 김형균 나기학
남대진 노승민 문성국 문성국 문순임 문정숙 문지영 박금자 박옥현 박은옥
박현동 배현철 서대석 서동원 선진숙 송래은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기만
양은희 오금수 오선환 오주병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이계택
이명렬 이명로 이봉호 이선희 이옥선 이재호 이종인 이지윤 이진우 이천오
이현주 이현철 이희정 임은혜 임정원 임준희 임홍연 정미애 정재순 정희남
정 민 정성빈 정옥진 정지숙 조경수 조규춘 조성진 조수현 조영환 조인호
조판철 주호균(문규영) 채영호 최강민 최경자 최성영 최은주 최응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정숙 현기식 황진

김제평통사(준)

[12월 회비]

권태정 김상봉 김성순 김승환 김영미 김영주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창화 김형기 김형예 김형택 나인관 나현균 남공윤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영배 박원용 백창민 소광석 손은하 신동우 안진상 오인근 유재환 이경윤
이소정 이용만 이우관 이은경 이현숙 전미영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최종일
최종일 하성애 황해정

[1월 회비]

김미라 김성순 김승환 김영미 김영주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창화
김형기 김형예 김형택 나인관 나현균 남공윤 노경두 노규석 박기주 박기주
박기주 박영배 박원용 백창민 소광석 손은하 신동우 안진상 오인근 유재환
이경윤 이소정 이연규 이용만 이우관 이우관 이은경 이현숙 전미영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하성애 황해정

나주평통사

[12월 회비]

강현호 김경호 김병균 김성보 김영민 김요섭 박선재 박성태 박영선 박정현
박철순 소 영 안보현 양이화 이동택 이 연 이용범 이재정 이재휘 이정훈
이현영 장순영 장재영 정만식 정소영 정윤자 정희만 조기태 최기춘 최진연
홍기숙

[1월 회비]

강현호 김경호 김병균 김성보 김영민 김요섭 박선재 박성태 박영선 박정현
박철순 소 영 안보현 양이화 이동택 이 연 이용범 이재정 이재휘 이정훈
이현영 장순영 장재영 정만식 정소영 정윤자 정희만 조기태 최기춘 최진연
홍기숙

대구평통사

[12월 회비]

강기룡 강현옥 고경수 고희림 광영은 구연우 구자숙 권순덕 권오혁 권재호
권주연 권정호 김경화 김기욱 김기용 김대성 김덕기 김도은 김동수 김명환
김미란 김미정 김병길 김선희 김성국 김성태 김수경 김영숙 김영숙2 김영운
김은주 김정미 김정수 김종희 김지남 김찬수 김호훈 나미숙 노영옥 노익화
노익화 문혜경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단 박영하 박영희 박재범 박주현
박진삼 박철주 박태정 박형선 배소라 배인연 배미연 서보성 설동현 손만철
손영준 송철환 신복실 신영도 신효철 안주연 안현수 안은숙 양정희 오신택
오창선 오현희 오혜란 우정순 유은정 유은정2 유재범 유창원 윤하임 윤영지
이근우 이기락 이기분 이기자 이동수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석문
이석주 이영훈 이용우 이은수 이인옥 이재호 이정연 이종근 이종준 이종희
이준원 이창식 이진원 이창주 이태광 이희일 임정규 임현정 장성태 장재호
장재호2 장정자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영 정수태
정용선 정종득 정훈호 조규천 조현정 주경태 차상혁 천영희 최봉태 최석인
최진원 최춘식 최현정 하재철 한기영 함수연 허정호 허태남 홍상옥 황철식

[1월 회비]

강기룡 강현옥 고경수 고희림 광영은 구연우 구자숙 권순덕 권오혁 권재호
권주연 권정호 김경화 김기욱 김기용 김대성 김덕기 김도은 김동수 김명환
김명환 김미란 김미정 김병길 김성국 김성태 김수경 김영숙 김영숙2 김영운
김은주 김정미 김정수 김종희 김지남 김찬수 김호훈 나미숙 노영옥 노익화
문혜경 박배일 박소영 박순단 박영하 박영희 박재범 박주현 박진삼 박철주
박태정 박형선 배소라 배인연 배미연 서보성 설동현 손만철 손영준 송철환
신복실 신영도 신효철 안주연 안현수 안은숙 양정희 오창선 오현희 오혜란
우정순 유은정 유은정2 유재범 유창원 윤하임 윤영지 이근우 이기락
이기분 이기자 이동수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술 이석문 이석주 이영훈
이용우 이은수 이인옥 이재호 이정연 이종근 이종준 이종희 이준원 이창식
이진원 이창주 이태광 이희일 임정규 임현정 장성태 장재호 장재호2 장정자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숙 정민규 정수경 정수영 정수태 정용선 정종득
정훈호 조규천 조현정 주경태 차상혁 천영희 최봉태 최석인 최진원 최춘식
최현정 하재철 한기영 함수연 허정호 허태남 홍상옥 황철식

목포평동사(영임)

[12월 회비]

강성취	강 신	강원구	강현석	고정석	권혜경	김경희	김관일	김금숙	김기중
김나리	김동규	김무영	김민지	김석원	김애리	김영제	김재철	김재홍	김중수
김중석	김지희	김창현	김태동	김현아	김현우	김희상	류경숙	마상진	문성훈
문예준	문희정	박관철	박기철	박미숙	박성준	박서근	박 웅	박찬중	박진경
박중성	백동규	변철진	서정임	서만철	소복제	손낙수	손민원	손지은	송원천
송철호	신재범	신환중	안광미	양현주	여인두	염경숙	오승주	유지용	유홍영
윤성현	윤소하	윤영성	이경수	이경훈	이규인	이미정	이보라미	이선재	이윤이
이중환	이중희	이자용	이현숙	임동웅	임소만	임원택	장금희	장문규	장미경
정세원	정유진	정석기	정성우	정승창	정영록	정우담	정지범	정진길	조기형
조상현	조성규	조창익	조필순	최경민	최경진	최기중	최상숙	최은기	최진호
최철원	최 훈	한미경							

[1월 회비]

강성취	강 신	강원구	강일국	강현석	고정석	권혜경	김경희	김관일	김금숙
김기중	김나리	김동규	김무영	김민지	김석원	김애리	김영제	김재철	김재홍
김중석	김지희	김창현	김태동	김현아	김현우	김희상	류경숙	마상진	문성훈
문예준	문희정	박관철	박기철	박미숙	박성준	박서근	박 웅	박찬중	박진경
박중성	백동규	변철진	송원천	송철호	신재범	신환중	안광미	양현주	여인두
염경숙	오승주	유지용	윤성현	윤소하	윤영성	이경수	이경훈	이규인	이미정
이보라미	이선재	이윤이	이중환	이자용	이현숙	임동웅	임소만	임원택	장금희
장문규	장미경	장세원	정성우	정승창	정영록	정우담	정지범	정진길	조영규
조창익	최경민	최경석	최기중	최은기	최진호	최철원	최 훈		

보령평동사

[12월 회비]

고미숙	권기석	권순현	권진복	김기중	김양자	김영석	김은수	김정주	김중성
김진수	남미자	백은영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오정학
오미경	우장식	유성준	이덕표	이범석	이영준	이용우	이재문	이정근	이정학
이중협	이정호	이학원	정수정	최병성	추동신	한광수	홍은정	황태연	

[1월 회비]

고미숙	권기석	권순현	권진복	김기중	김양자	김영석	김은수	김정주	김중성
김진수	남미자	류남신	백은영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오미경	우장식	유성준	이덕표	이범석	이영준	이용우	이재문	이정근	이정학
이중협	이학원	정수정	최병성	추동신	한광수	홍은정	황태연		

부산평동사

[12월 회비]

강문성	강문수	강새나	강정아	강한들	경노현	공명택	곽광덕	곽상진	권수진
권 일	권정미	권창훈	김강일	김건우	김경석	김경태	김광수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나영	김나원	김대영	김덕자	김문근	김미경	김봉현	김봉현	김선영
김성수	김수길	김여원	김미영	김영자	김영환	김영환	김요아	김지환	김지환
김용환	김옥	김유중	김유자	김은영	김은자	김은주	김은주	김재연	김정선
김종이	김주희	김지영	김지은	김하원	김해빈	김교희	김해영	김현봉	김현봉
김현호	김형관	김혜경	김홍우	남승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노정현	노다지
문배수	문상환	문은경	박경서	박다은	박봉규	박석문	박석호	박승원	박승자
박승호	박상준	박정희	박종관	배영철	변재옥	서금성	서미숙	서유연	서은실
서종범	서진화	설정희	성기석	성은하	손기중	송정아	신경희	신상범	신석균
신수정	신승태	신양범	신연아	신차범	신현규	신나영	심상진	안명희	안승업
안수영	안승태	양은희	양하나	염귀경	염병중	여영준	오영환	온배물터	우수경
우수경	원무정	원형은	유수진	유재규	유홍희	윤경환	윤종근	윤종렬	윤해정
이기성	이덕순	이상남	이상익	이상창	이상철	이소일	이우영	이원영	이유섭
이희영	이희익	이재민	이점숙	이정숙	이정희	이진호	이창환	이학진	이혜선
이화진	임상진	장기홍	장유달	장호복	전재명	정쌍은	정영선	정영은	정원옥
정의현	정인하	정임훈	정혜경	조광호	조병준	조보교	조형래	진승희	차성호
차정호	차정원	채희원	최무덕	최병환	최영애	최종태	최진	하경숙	하지림
한소영	한홍구	허남득	허재봉	홍자영	황구화	황도용	황성은	황용재	황희경

[1월 회비]

강문성	강문수	강새나	강정아	강한들	경노현	공명택	곽광덕	곽상진	권수진
권수진	권 일	권정미	권창훈	김강일	김건우	김경석	김광수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나영	김나원	김대영	김덕자	김문근	김미경	김봉현	김봉현	김선영
김수길	김여원	김미영	김영자	김영환	김영환	김요아	김지환	김지환	김지환
김유자	김은영	김은자	김은주	김은주	김재연	김정선	김종이	김주희	김주희
김지영	김지은	김하원	김해빈	김교희	김해영	김현봉	김현봉	김현봉	김현봉
김해경	김홍우	남승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노정현	노다지	문배수	문상환
문은경	박경서	박다은	박봉규	박석문	박석호	박승원	박승자	박승호	박승호
박정희	박종관	배영철	변재옥	서금성	서미숙	서유연	서은실	서종범	서진화
서진화	설정희	성기석	성은하	손기중	송정아	신경희	신상범	신석균	신승태
신연아	신차범	신현규	신나영	심상진	안명희	안승업	안수영	안승태	양은희
양은희	양하나	염귀경	염병중	여영준	오영환	온배물터	우수경	원무정	원형은
유수진	유재규	유홍희	윤경환	윤종근	윤종렬	윤해정	이기성	이덕순	이희영
이희영	이희익	이재민	이점숙	이정숙	이정희	이진호	이창환	이학진	이혜선
이화진	임상진	장기홍	장유달	장호복	전재명	정쌍은	정영선	정영은	정원옥
정의현	정인하	정임훈	정혜경	조광호	조병준	조보교	조형래	진승희	차성호
차정호	차정원	채희원	최무덕	최병환	최영애	최종태	최진	하경숙	하지림
한소영	한홍구	허남득	허재봉	홍자영	황구화	황도용	황성은	황용재	황희경

부천평동사

[12월 회비]

강성취	강영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권향란	권혁만	권희진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미영	김석환	김성근	김성애	김성용	김성훈	김수철	김수철
김숙희	김애연	김용란	김용상	김정은	김정훈	김주영	김지석	김현주	김현주
김혜영	노은하	노형욱	류진남	문종열	문성훈	문성훈	박석민	박성진	박성진
박영민	배영미	서순복	서해숙	석의정	설정숙	성명은	송기부	송원천	송기부
신용철	신정길	심영선	이은형	이중주	이정훈	이진희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숙주	이승자	이영아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임숙영	임종명	장해영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정인주	정현희	정희복	조기대	조숙희	조숙희	조숙희	조숙희	조숙희	조숙희
황성진	황영희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1월 회비]

강성취	강영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권향란	권혁만	권희진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미영	김석환	김성근	김성애	김성용	김성훈	김수철	김수철
김숙희	김애연	김용란	김용상	김정은	김정훈	김주영	김지석	김현주	김현주
김혜영	노은하	노형욱	류진남	문종열	문성훈	문성훈	박석민	박성진	박성진
박영민	배영미	서순복	서해숙	석의정	설정숙	성명은	송기부	송원천	송기부
신용철	신정길	심영선	이은형	이중주	이정훈	이진희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숙주	이승자	이영아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임숙영	임종명	장해영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전윤미
정인주	정현희	정희복	조기대	조숙희	조숙희	조숙희	조숙희	조숙희	조숙희
황성진	황영희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황준현

서울평동사

[12월 회비]

강대곤	강대준	강보황	강수혜	강양원	강우균	강윤미	강주산	강효석	경영준
고광호	고영우	고연주	공동길	곽노현	곽원호	구수경	구자숙	권남기	권순길
권순희	권영무	권 은	권정희	권재숙	권지숙	권혁문	권기영	권기영	권기영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호	김경열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기원	김대성
김동훈	김명선	김명일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상균	김상균	김상균	김상균
김선희	김성연	김성훈	김수목	김수나	김만수	김영균	김영모	김영모	김영모
김영은	김영재	김영진	김영진	김영미	김우창	김운성	김원봉	김우석	김우석
김유하	김유형	김은미	김은미	김익원	김인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원	김정자	김정자	김정원	김정원	김지수	김진근	김진환	김중례
김태준	김한선	김해성	김한진	김향자	김현진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현	나현대	나해영	남미영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미아	류시자	류은숙
류희숙	림구호	마영미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문현지	(강영옥)	민 영	민현주
박은희	박상호	박연미	박은복	박은주	박종기	박종영	박종영	박종인	박진옥
박진희	박하영	박해철	박후임	박희성	박희정	배기봉	배주희	배 진	배준식
변양신(나 향)	변연식	변연희	서보혁	서영미	서유미	서인구	서정래	서진희	서창석
서창석	서창호	선소진	선소단	선영일	선우정	선정숙	송금식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신필중	심소은	안근호	안병호	안희숙	양금소	양덕순	양민석
양수정	양원진	여익선	여계희	여혜숙	연선민	오기성	오익영	오덕순	오미정
오지연	오태경	오혜경	우미정	우성관	(2개월)	원용호	유나리	유영철	유재택
유정숙	유현주	(2개월)	유형걸	윤근성	윤동현	윤성진	윤수애	윤영수	(2개월)
윤영일	윤영진	윤은성	윤정원	윤정원	윤호성	이정목	이정숙	이영아	이정옥
이영희	이영희	이광숙	이광숙	이기모	이기영	이기자	이동주	이두우	이민현(1년)
이상기(이영은)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순희	이승우	이애용	이영옥	이영주	이 유	이유영	이재갑	이재필	이정상
이정숙	이정숙	이중수	이형수	이혜진	이호원	임동원	임경도	장기주	장남희
(2개월)	임소예	임인식	임정혁	임정원	임태환	임호일	임경도	장기주	장남희
전기호	전영란	전은규	(2개월)	정광관	정성현	정성민	정소연	정수애	정수원
정원진	정주원	정준영	정호찬	조계성	조선국	조영희	조은화	조창현	조희원
주혜원	진유수	차정은	채은숙	최대목	최민숙	최미하	최상술	최석희	최성민
최아람	최영현	최 원	최종영	최창수	최현민	한문덕	한상근	한상옥	한성희
한준현(2개월)	한현실	한호석	허영석(2개월)	형복순	홍기정	홍영희	홍영희	홍영희	홍영희
홍창희(김영화)	홍희덕	황덕호	황순하	황 완	황윤미	황철우			

[12월 특별 후원]

이정숙	이선옥	김중환	윤영일	신재훈	장남희	강수혜	형복순	변인식(1년)
나승길	정기주	황 완	박은복	한상기	김은미	박한창		

[1월 회비]

고대곤	강대준	강보황	강수혜	강양원	강영옥	강윤미	강주산	강효석	경영준	고광호
고광호	고영우	고연주	공동길	곽노현	곽원호	구수경	구자숙	권남기	권순길	권순희
권순희	권영무	권은	권정희	권재숙	권지숙	권혁문	권기영	권기영	권기영	권영무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호	김경열	김균열	김기수	김기수	김기원	김대성	김대성
김동훈	김명선	김명일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상균	김상균	김상균	김상균	김상균
김선희	김성연	김성훈	김수목	김수나	김만수	김영균	김영모	김영모	김영모	김영모
김영은	김영재	김영진	김영진	김영미	김우창	김운성	김원봉	김우석	김우석	김우석
김유하	김유형	김은미	김은미	김익원	김인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원	김정자	김정자	김정원	김지수	김진근	김진환	김중례	김태준	김한선
김태준	김한선	김해성	김한진	김향자	김현진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김희수	나현대
나현대	나해영	남미영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미아	류은숙	류희숙	류희숙	림구호
림구호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민정호	민영희	박경희	박희영	박희영	박희영	박은복
박은복	박은주	박종기	박종영	박종인	박진옥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	박진희	박해정(2개월)
박해정(2개월)	박해진	박후임	박후임	박희열	배기봉	배주희	배재	배진	배진희	변석진
변석진	서보현	서영미	서예원(2개월)	서유미	서인규	서정	서준희	서정희	서정희	서정희

최명호 최용기 최인규 최재훈 한금수 허만승 황대성 황재현

[1월 회비]

강가현 강대권 고내희 고내희 고이석 고차원 곡동순 국 산 국 산 국윤호
권동용 김두성 김민준 김병선 김성환 김여진 김영호 김은자 김재범 김정임
김주진 김진성 김홍준 김대순 백기동 백혜영 김호성 나영숙 노재화 문아경 민혜경
박기순 박성열 박수배 방용순 배기동 배현진 박영진 박종진 박종현 박진수 박태현 서민호 서정대 송호철
서 승 서은숙 소춘수 송기춘 송미영 송주영 심병호 심 훈 안경자 양동훈
양희진 엄영희 오봉숙 원명재 유영진 육숙경 이기봉 이기환 이동백 이동주
이상빈 이승렬 이수원 이승희 이영환 이인규 이재호 이주희 이종희 이정은
이형구 임익근 장중철 전상호 전소자 전형석 정기동 정기철 정형용 조경희
조미숙 조정현 전호석 최금희 최영숙 최영호 최인규 최재훈 최정옥
최정옥 허만승 황대성 황재현

해남평통사

[12월 회비]

강대회 강정자 강태양 김경옥 김미희 김민하 김병옥 김상엽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은곤 김은숙 김정삼 나성근 노 란 문재식 문형귀 민경진 박병율
박승규 박영자 박은정 박종삼 박태정 배종진 배종수 백형진 봉문수 서용석
안소희 안종기 양근재 양동욱 양하승 염채연 오성재 오영택 오은숙 용영아
유문식 윤상학 윤영식 윤예준 윤준자 이무진 이병채 이상규 이완열 이정화
이종관 이지영 이종재 임영호 임현삼 정미호 정우광 전상규 정기섭 정영철
정진아 주단우 최신영 최영숙 최은숙 한강희

[1월 회비]

강대회 강정자 강태양 김경옥 김미희 김민하 김병옥 김상엽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은곤 김은숙 김정삼 나성근 노 란 문재식 문형귀 민경진 박병율
박승규 박영자 박은정 박종삼 박태정 배종진 배종수 백형진 봉문수 서용석
안소희 안종기 양근재 양동욱 양하승 염채연 오성재 오영택 오은숙 용영아
유문식 윤상학 윤영식 윤예준 윤준자 이무진 이병채 이상규 이완열 이정화
이종관 이지영 이종재 임영호 임현삼 정미호 정우광 전상규 정기섭 정영철
정진아 주단우 최신영 최영숙 최은숙 한강희

강원 지역 회원

[12월 회비] / [1월 회비]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이진석 /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이진석

대전충청 지역 회원

[12월 회비]

기명현 강기현 강홍순 강희운 고광성 구본중 권현영 김용수 김경숙 김규원
김기현 김도석 김동희 김미숙 김미연 김복실 김상미 김상준 김성기
김성희 김연재 김연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남소라 노정래 류기형 모성진 문소희 문양로 민학기 박노찬 박노찬 박상연
박상연 박인철 박필규 백영기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준배 석수진 성광진
손정희 손정희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관호 신성원 신주희 신현웅
신현정 심규상 심상무 심우근 심진호 심진호 심주호 안창호 양은영 오대현
오수진 오완근 유관희 유단비 유성호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이광현 이기훈 이기훈 이도구 이도구 이도구 이도구 이도구 이도구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창복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철호 이철호 이철호 이철호 이철호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조재형 조주형 차인기 채승봉 최영규 최영민 최혜경 추교하 풍천교회 한기
형 한상열 함필주 허인 홍지은 황영식 황의대

[1월 회비]

기명현 강기현 강대훈 강대훈 강홍순 강희운 고광성 구본중 권현영 김용수
김용수 김규원 김도석 김동희 김미숙 김미연 김복실 김상미 김상준 김성기
김성희 김연재 김연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남소라 노정래 류기형 모성진 문소희 문양로 민학기 박노찬 박노찬 박상연
박상연 박인철 박필규 백영기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준배 석수진 성광진
석수진 석수진 성광진 손정희 손정희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관호
신성원 신주희 신현정 심상무 심우근 심진호 심진호 심주호 안창호 양은영
오수진 오완근 유관희 유단비 유성호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유정환
이광현 이기훈 이기훈 이도구 이도구 이도구 이도구 이도구 이도구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요한
이창복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철호 이철호 이철호 이철호 이철호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장인백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정대환
조재형 조주형 차인기 채승봉 최영규 최영민 최혜경 추교하 풍천교회 한기
형 한상열 함필주 허인 홍지은 황영식 황의대

무안 지역 회원

[12월 회비]

강성욱 강경태 김기주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형필
김호산 문영란 문유신 박상석 박치우 송봉섭 윤동주 이도선 이정훈 이태석
임재점 정상철 정영란 정중석 정찬록 채미라 최병상 최충훈 홍석주 홍용식

[1월 회비]

강성욱 강경태 김기주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형필
김호산 문영란 문유신 박상석 박치우 송봉섭 윤동주 이도선 이정훈 이태석
임재점 정상철 정영란 정중석 정찬록 채미라 최병상 최충훈 홍석주 홍용식

전남 지역 회원

[12월 회비]

강덕구 강복현 기숙희 김광수 김광식 김대현 김미숙 김선태 김슬기 김은희
김형재 김현지 김형식 김희태 나옥석 노병남 노형태 류준신 문미경 박경옥
박경희 박광운 박동화 박용두 박종재 박진수 박태현 서민호 서정대 송호철
오대형 유원상 유현승 유규현 이광수 이규열 이동현 이승현 이우경 정영이
정은정 조동근 최영주 채일손 최 성 최순옥 최은애 한창덕

[1월 회비]

강덕구 강복현 기숙희 김광수 김광식 김대현 김미숙 김선태 김슬기 김은희
김형재 김현지 김형식 김희태 나옥석 노병남 노형태 류준신 문미경 박경옥
박경희 박광운 박동화 박용두 박종재 박진수 박태현 서민호 서정대 송호철
오대형 유원상 유현승 유규현 이광수 이규열 이동현 이승현 이우경 정영이
정은정 조동근 최영주 채일손 최 성 최순옥 최은애 한창덕

제주 지역 회원

[12월 회비] / [1월 회비]

강호진 고권일 권형우 김민수 김성규 김중환 문무병 박한백 방은미 양윤호
오명애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 강호진 고권일 김민수 김성규 김중환 문무병
박한백 방은미 양윤호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평택경기 지역 회원

[12월 회비]

강경남 권차량 김교원 김성환 김용표 김용환 김주성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박성철 박해정 서맹섭 신종원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이가영 이경수 이수용
이수용 이양진 이은우 이진희 이혜준 정인교 조영심 조원국 차치아문와라판
추명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황영선

[1월 회비]

강경남 권차량 김교원 김성환 김용표 김용환 김주성 김준기 김택균 도영호
박성철 박해정 서맹섭 신종원 연창호 염형만 오영미 이가영 이경수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은우 이진희 이혜준 정인교 조영심 차치아문와라판 추명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평화통일연구소

[12월 이사회비]

강정구 강정구 김일희 김지영 노재열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오동석 이정학
이진우 임승계 임종철 정규영 조한정 최소영 홍영진

[12월 회원 및 후원회비]

강수해 강윤미 고송은 고희림 권기석 권순걸 권진복 권현영 김강연 김관일
김금례 김대성 김대순 김미령 김미정 김성태 김숙희 김시원 김시원 김시우
김영석 김영재 김영재 김영희 김유옥 김은주 김중우 김중희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효남 남궁갑 류승하 문규현 민경숙 박경순 박병을 박복희 박성준
박성희 박성민 박성진 박영희 박은옥 박영희 박해철 변연희 서경혜 서종환
손범수 손윤희 손종욱 신재현 신재현 신준규 심신아 심자섭 오미정 오종호
오해란 유영재 유정섭 유한경 윤승하 윤영일 윤영일 이근구 이경옥 이기훈
이기훈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은영 이재호 이정숙 이종환 이주는 이혜연 임원희 임주희 장남희 전재경
정근수 정근수 정동석 정수경 정승창 정용진 정일태 정한관 정현희 조미향
조승현 주은형 주정숙 최병상 최원정 하태준 하태준 한상근 한상기 한승중
한혜영 함수연 허명석 황윤미

[12월 특별 회비] 최소영

[1월 이사회비]

강정구 강정구 김일희 김지영 노재열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이정학 이진우
임승계 임종철 정규영 조한정 최소영 홍영진

[1월 회원 및 후원회비]

강수해 강윤미 고희림 권기석 권순걸 권진복 권현영 김강연 김관일 김금례
김대성 김대순 김미령 김미정 김성태 김숙희 김시원 김시원 김시우
김영석 김영재 김영재 김영희 김유옥 김은주 김중우 김중희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효남 남궁갑 남궁갑 류승하 문규현 민경숙 박경순 박병을 박복희
박성준 박성희 박성민 박성진 박영희 박은옥 박영희 박해철 변연희 서경혜
서종환 손범수 손윤희 손종욱 신재현 신재현 신준규 심신아 심자섭 오미정
오종호 오해란 유영재 유정섭 유한경 윤승하 윤영일 윤영일 이근구 이경옥
이기자 이기자 이기훈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명옥
이왕재 이우성 이은영 이재호 이정숙 이종환 이주는 이혜연 임원희 임주희
장남희 전재경 정근수 정동석 정수경 정승창 정용진 정일태 정한관 정현희
조미향 조미향 조승현 주은형 주정숙 최병상 최원정 하태준 하태준 한상근
한상기 한승중 한혜영 함수연 허명석 황윤미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회비 명단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알려주세요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연 락 처 : 010-2237-7822 이재호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9315-1796 정일태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종수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안동평통사

연 락 처 : 010-9867-1599 배용환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김제평통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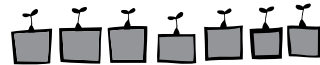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대전충청모임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무안모임

연 락 처 : 010-3645-2722 문영란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번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20년 2월 5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팩 스** (02)712-8445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촉구 국제 서명

당신의 서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핵무기금지!

'핵무기금지조약(TPNW)'이란?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험 등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불법화한 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50개국이 비준해야 합니다. 현재 (2020년1월1일) 총 34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6차 운영위원 총회

2020. 2. 22.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관(서울)

✓ 2019년 사업 평가와 2020년 사업계획 확정
예·결산안 승인 등

✓ 운영위원 총회위원 참가비: 1만원

평화 번영 통일시대 마중물이 되자!

